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 경기 전망

2009. 3. 9 제33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서울 경제 여건
- II. 서울의 소비자 체감 경기 전망
- III. 서울의 기업 체감 경기 전망
- IV. 종합분석 및 시사점
- 부록. 2009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2009년 1/4분기 서울의 경제 여건은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침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할 만한 사실은 지난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6.0%나 하락하였고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점이다. 또한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중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월의 서울의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은 10.7%로 일시적으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1월의 설 특수으로 인한 내수판매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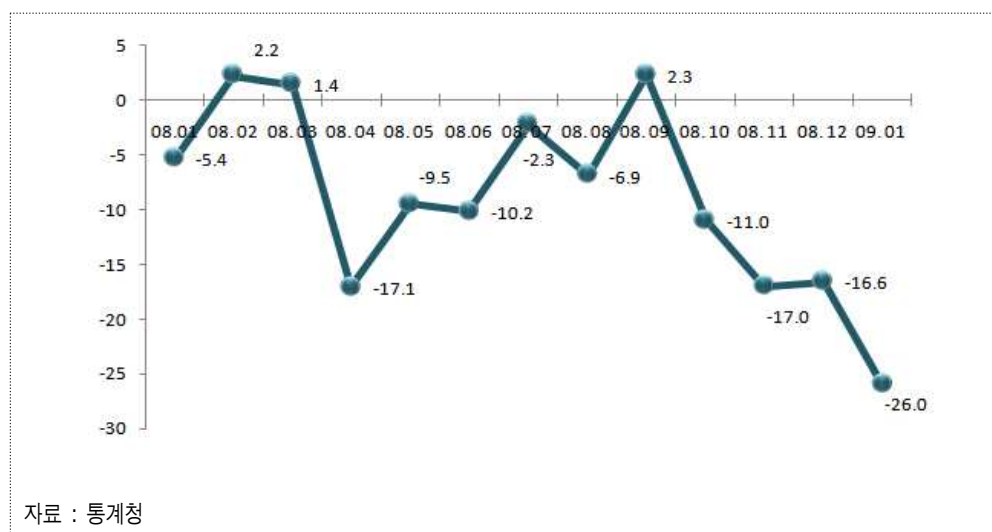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09년 1/4분기 중 소비자 체감 경기를 전망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폭이 미미하고 기준치 100이하여서 현재의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판단이 우세하다. 그러나 같은기간 중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7.1로 지난 분기 보다 30.3P나 상승하여 향후 1년후의 서울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9년 1/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6.8로 소비자 체감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기준치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서울 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세계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4분기 서울의 기업 업황실적지수는 60.5로 전분기에 이어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침체상황이 심각한데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55.9로 전분기 60.1 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비제조업 지수 62.6 보다도 크게 낮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서울의 기업 경영이 악화된 이유로는 76.3%가 내수 침체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를 지적하였고, 그밖에 해외수요감소 18.6%, 업체간 과당경쟁 15.8% 순이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채용 규모 축소 17.6%, 상여금 및 성과금 축소 9.1%,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5.7% 등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상황은 심각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은 패션 21.3%, 컨벤션 20.0%, 디자인 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향후 이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서울 경제 여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1월 서울의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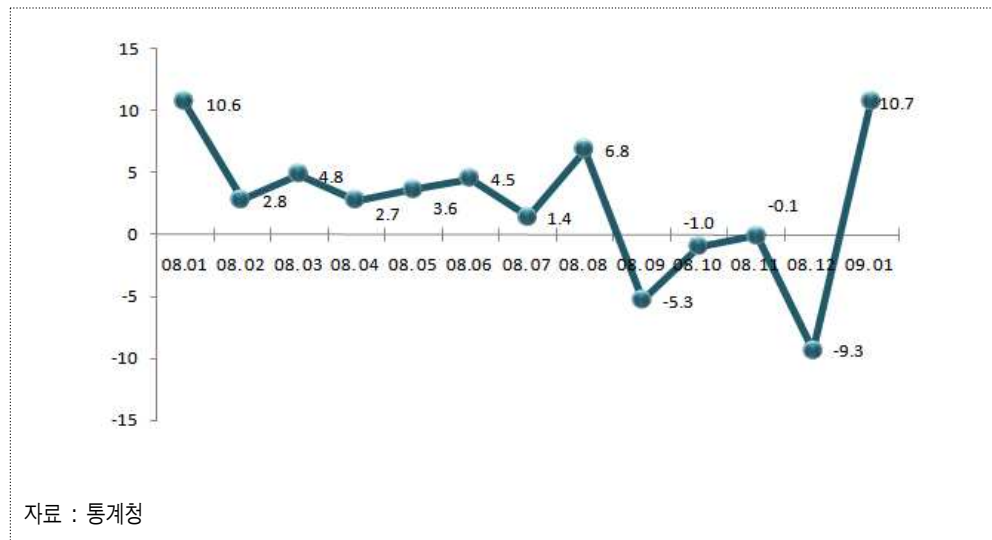
- 2009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은 -26.0%로 2008년 8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 2009년 1/4분기 중에도 마이너스 전망



[그림 1] 서울시 산업생산지수

- 최근 1년간 서울지역 산업생산 추이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9월(2.3%) 이후 넉 달 동안 평균 -20.0% 하락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서울의 2008년 한 해 산업생산지수는 평균 -7.5%로, 2007년 평균 -3.0% 비교하여 -4.5%p 차이를 나타내 최근 서울의 경기침체가 심각
- 전반적으로 소비자 및 기업 체감 경기 등 경제환경을 둘러싼 소비심리의 개선여지가 없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2009년 1/4분기 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2009년 1월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은 10.7%로 급등, 내수 경기 4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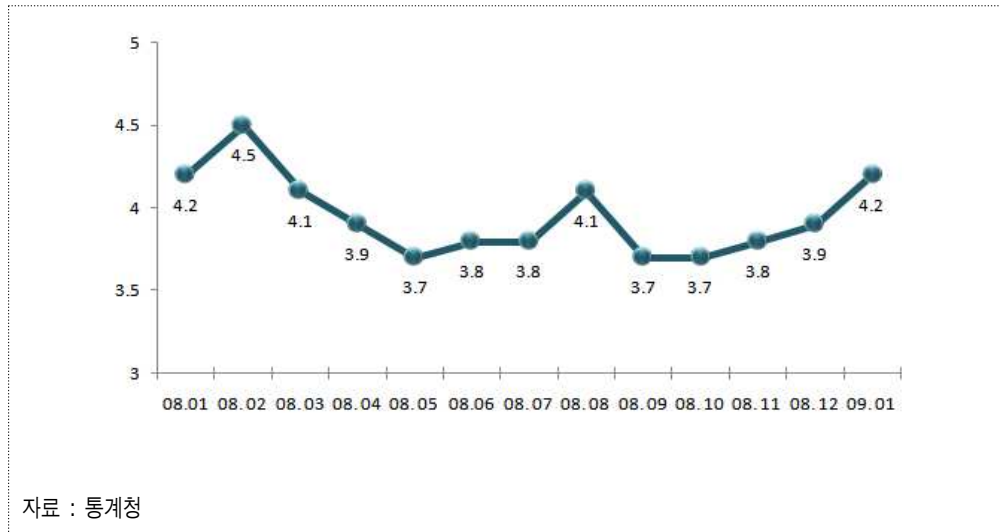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

-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내수 부진 속에 2008년 8월 6.8%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은 2009년 1월 10.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
- 설 특수 및 봄철 결혼 혼수 장만, 백화점 세일기간 등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전반적으로 생산 및 소비 등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와 관련하여 소비심리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증가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기타 특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불투명

반면, 서울의 실업률은 4%대로 지속적인 증가

- 서울의 실업률은 4.2%(2009년 1월)로 4개월 연속 상승,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그림 3] 서울시 실업률

- 서울의 실업률은 2008년 10월 3.7%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월 4.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향후 경기가 악화되면 서울시의 실업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 실업률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
- 서울의 청년층 15~29세의 실업률은 2008년 4/4분기 7.0%로, 국가 전체 평균 3.8%보다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
 - 주요 취업계층인 청년층의 졸업과 취업시기인 2~3월에,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해 취업계층의 유향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

II. 서울의 소비자 체감 경기 전망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지난분기보다 다소 개선

-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체감 경기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인 의견이 우세하나 2008년 4/4분기 63.7에 비해 상승 추세
-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여전히 기준치 100 이하로 비관적
- 그러나 최근 주식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 등으로 2008년도 4/4분기 63.7에 비해 14.6P 상승



[그림 4] 서울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미래 생활형편지수」는 99.2으로 향후 1년 후 생활형편 안정을 기대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09년 1/4분기 각각 67.6과 99.2로 서울지역의 현재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서울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전분기보다 큰 폭(21.7P)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1년 후 서울 지역의 생활 형편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09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7.8로 2008년 4/4분기 이후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현재 경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
- 반면,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7.1로 2008년 4/4분기보다 30.3P 상승하여 향후 1년 후 서울 경기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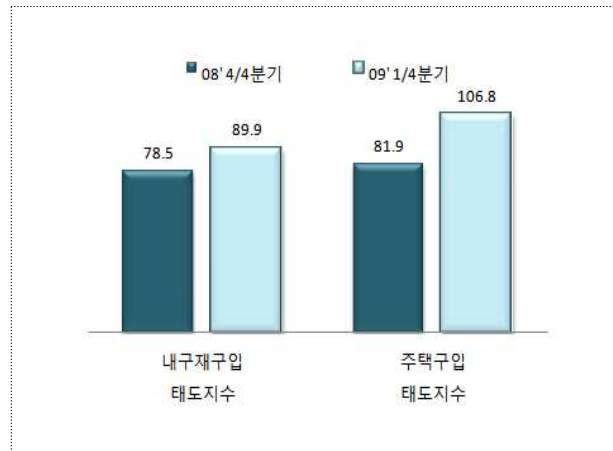


[그림 5] 생활형편지수



[그림 6]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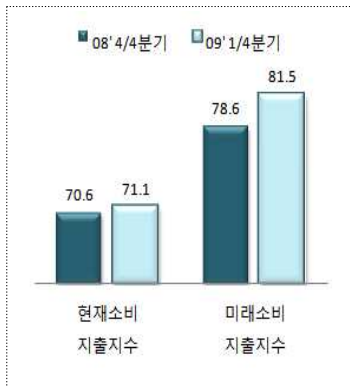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89.9를 기록한 반면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6.8을 기록
-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89.9로 여전히 기준치 100에 미달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으로 조사
- 그러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6.8을 기록, 주택구입 심리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주택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
- 「주택구입태도지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책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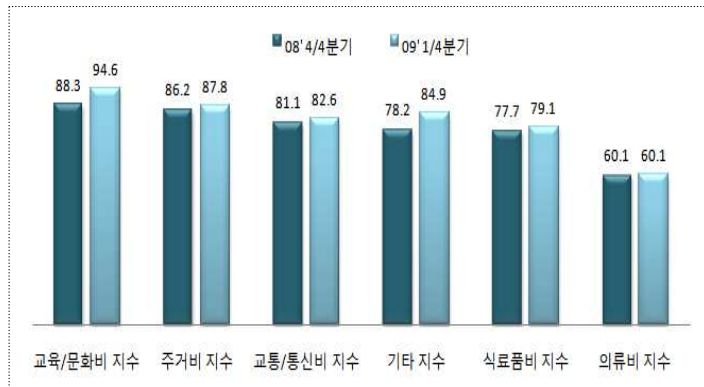
[그림 7] 구입태도지수

의류비 → 식료품비 → 교통·통신비 순으로 소비 축소 지속 예상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1.5로 전분기보다 나아지고 있으며 의류비 → 식료품비 순으로 소비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71.1로 큰 변화가 없이 소비지출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도 2009년 1/4분기 81.5로 전분기 대비 지수의 상승은 있으나 향후 1년 뒤에도 소비지출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의류비(60.1)', '식료품비(79.1)', '기타'(84.9), '교통·통신비(82.6)'의 순으로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조사
- 모든 품목의 소비가 2008년 4/4분기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에 미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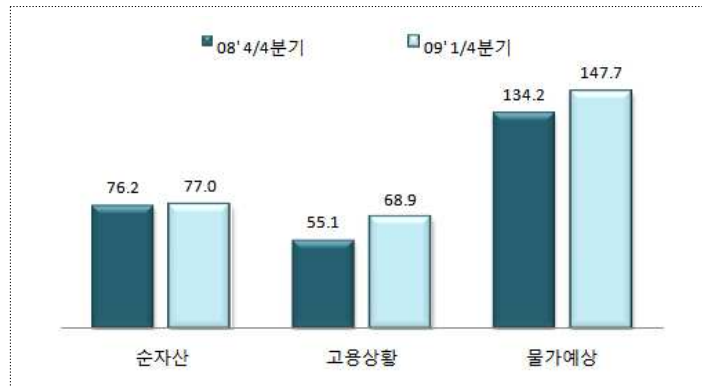
[그림 8] 소비지출지수



[그림 9] 품목별 소비지출지수

□ 순자산 규모, 고용 상황, 물가 모두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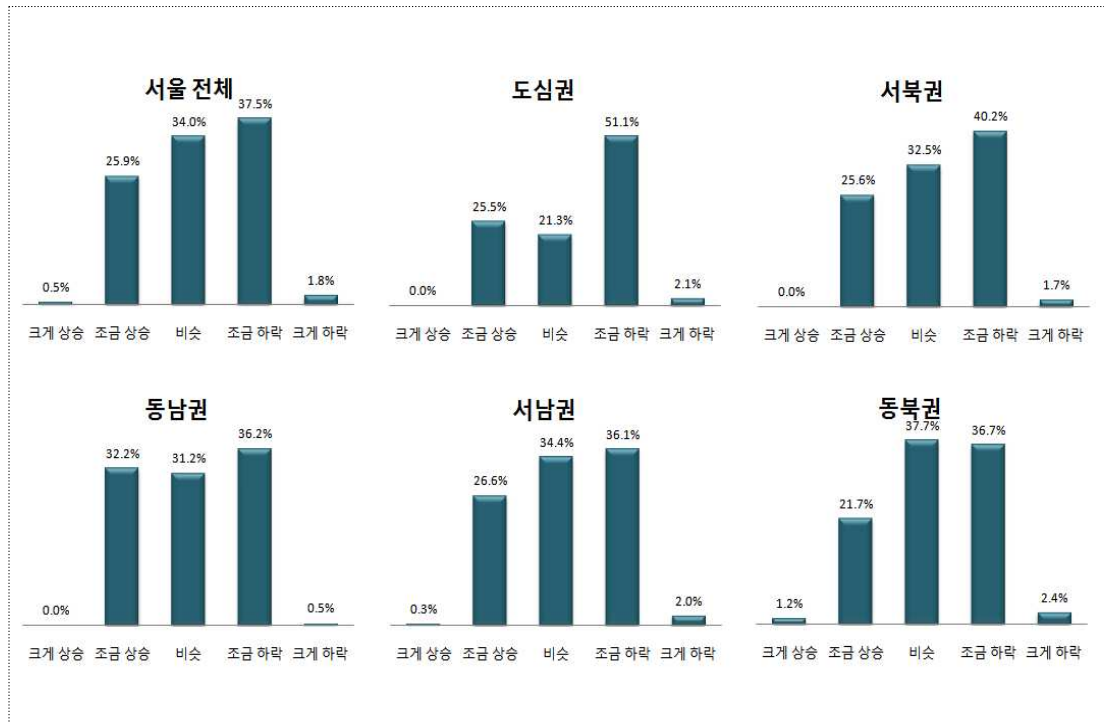
- 순자산 규모의 증가 여부를 나타내는 「순자산지수」는 2009년 1/4분기 77.0으로 2008년 4/4분기 대비 큰 변화가 없음.
-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주가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 향후 서울지역의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09년 1/4분기 68.9로 기준치 100보다 훨씬 하회하여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전분기 대비 지수가 상승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향후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1/4분기 서울의 「물가예상지수」는 147.7로 2008년 4/4분기 대비 약간 상승
- 이는 경기 침체로 실직, 소득감소, 고용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물가 불안 심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



[그림 10]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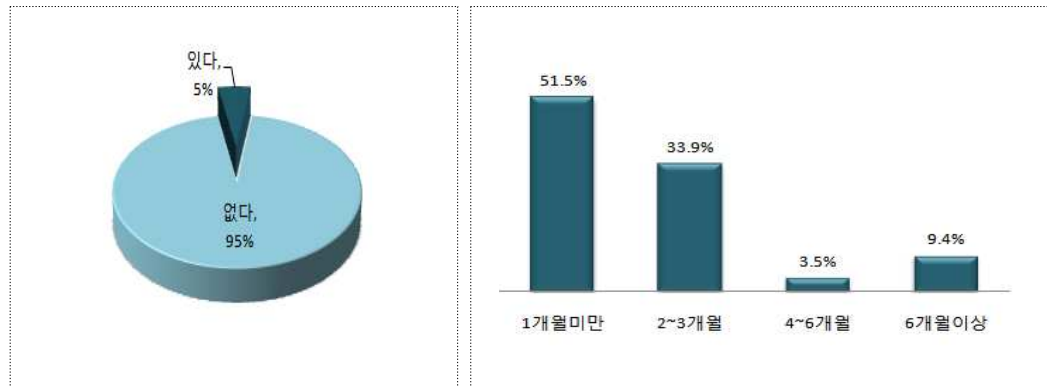
서울 지역 시민 73.3%가 하반기 주택시장이 침체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2009년 하반기 서울의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39.3%, '비슷할 것이다' 34.0%로 73.3%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전망
 -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하반기에도 서울의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될 전망
 -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의견은 도심권과 서북권에서 각각 53.3%, 41.9%로 서울 전체(39.3%)보다 높음
 - 그 외 동북권(39.1%), 서남권(38.1%), 동남권(35.1%) 순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동남권 32.2%로 서울 전체 26.4% 및 기타 권역에 비해 높음.
 - 이는 제2롯데월드, 한강변 초고층개발, 재건축 완화 등의 호재로 2009년 하반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해석



[그림 11] 권역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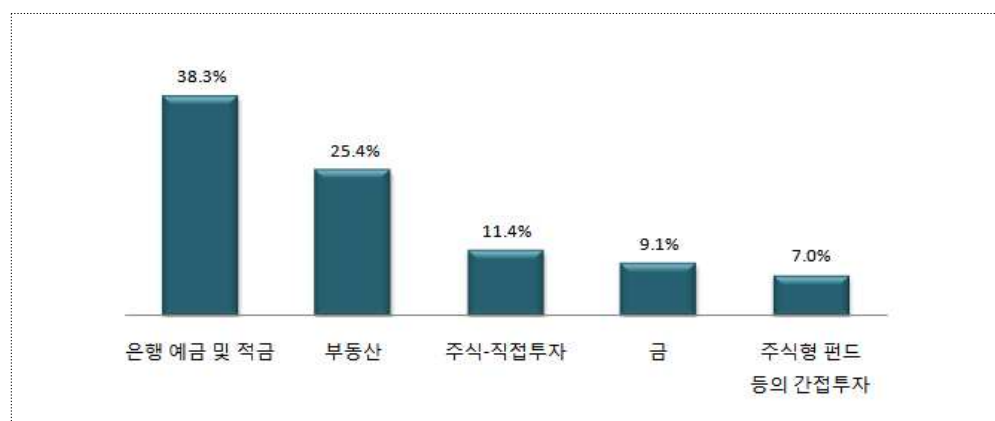
- 서울지역의 역전세난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
 - 주택을 임대해 주는 임대업자나 세입자 477명을 대상으로 역전세난 문제를 조사한 결과,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하여 전세 및 임대 보증금 인하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95.0%로 대다수를 차지
 - 보증금 인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5.0% 중 인하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50%, 1000만~3000만 원이 37.5%, 3000만 원 이상은 8.3% 순으로 대부분 소액 인하 수준
 - 계약 만료 후 다음 세입자의 입주까지 공백기간은 '1개월 미만'이 51.5% '2~3개월'이 33.9%, '6개월 이상' 9.4% 으로 실제로 6개월 이상 공실은 9.4% 수준



[그림 12]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경험 [그림 13] 계약 만료 후 다음 세입자의 입주까지 공백 기간

서울시민은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최우선으로 선호

- 올해 재테크 수단은 은행 예금 및 적금 선호, 그 다음으로 부동산
 - 재테크 선호 수단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은행 예·적금을 38.3%로 가장 선호, 그 다음으로 부동산(25.4%), 주식·직접투자(11.4%) 순
 - 현재 바닥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올해 안으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



[그림 14] 재테크 선호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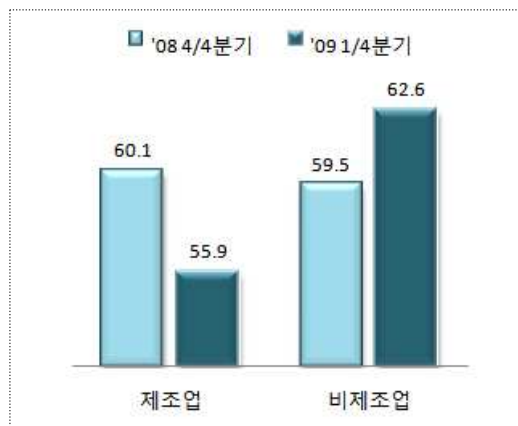
Ⅲ. 서울의 기업 체감 경기 전망

2009년 1/4분기 서울의 업황실적지수는 60.5로 기업 실적 침체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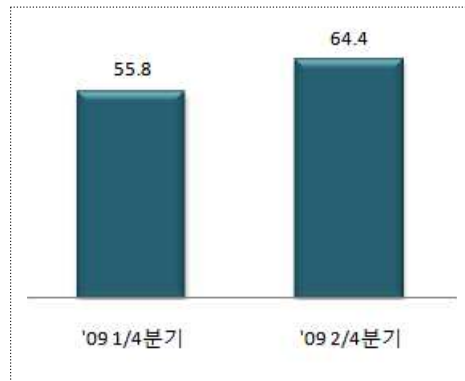
- 2009년 1/4분기 서울지역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
 - 제조업 지수는 55.9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비제조업 62.6에 비해 업황 지수가 낮음
 - 특히, 2008년 4/4분기 경기 침체 국면 가속화로 제조업의 기업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
 - 2/4분기 업황 전망은 64.4로 전분기 대비 8.6P 상승하였으나 침체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여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그림 15] 업황실적지수



[그림 16] 업종별 업황실적지수



[그림 17] 업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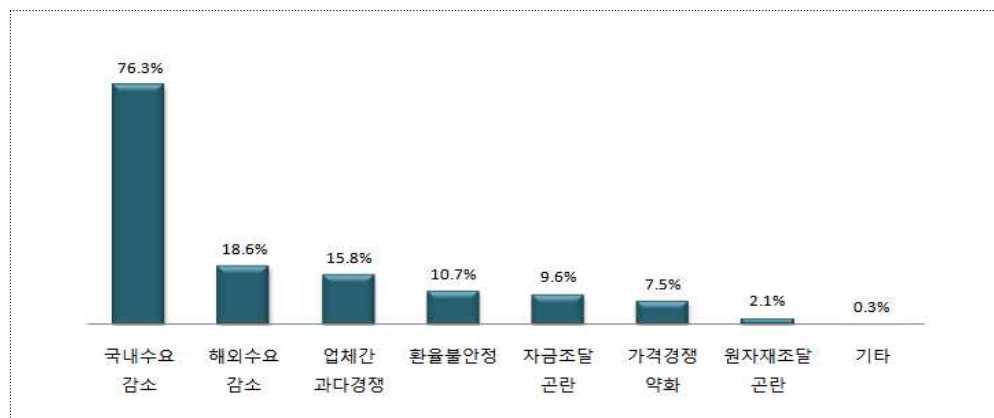


[그림 18] 업종별 업황전망지수

* 주: 전망지수는 다음 분기를 전망한 것으로 '08 4/4분기에 '09 1/4분기 전망, '09 1/4분기에 '09 2/4분기 전망 조사

□ 실적부진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가 압도적

- 업황 실적부진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가 76.3%로 압도적이며, '해외 수요 감소' 18.6%, '업체 간 과다 경쟁' 15.8%, '환율 불안정'이 10.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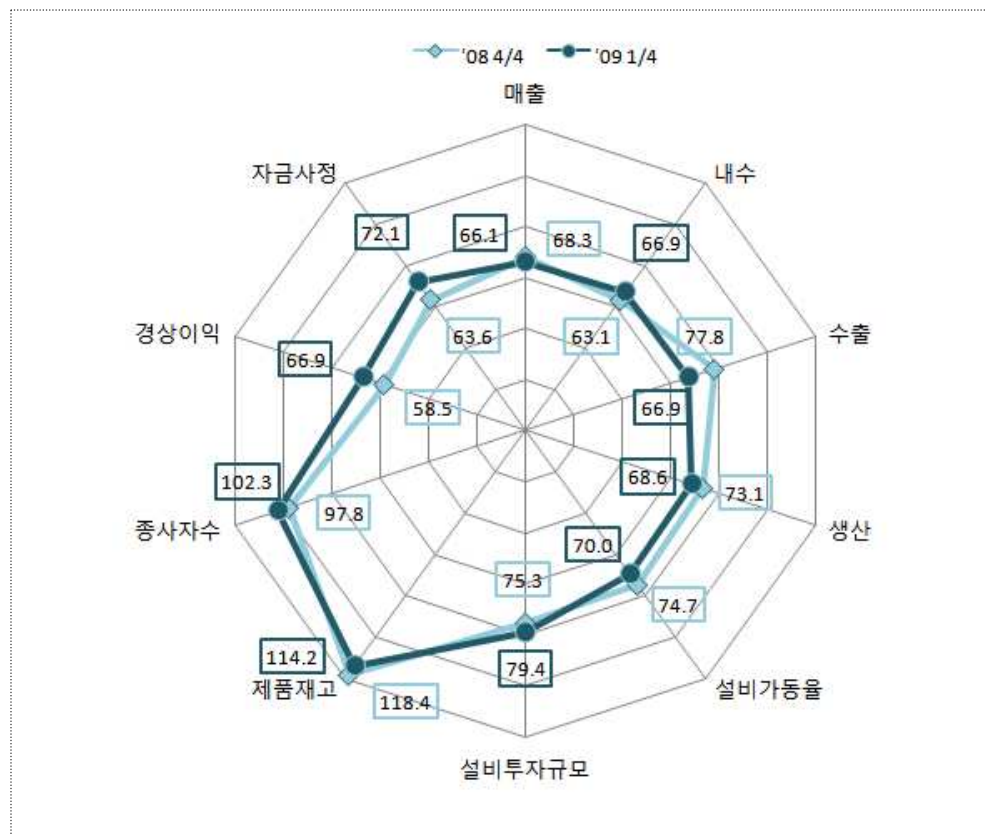


[그림 19] 현 경기상황을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

□ 각 부문별 실적 지수는 대부분 기준치 100 이하로 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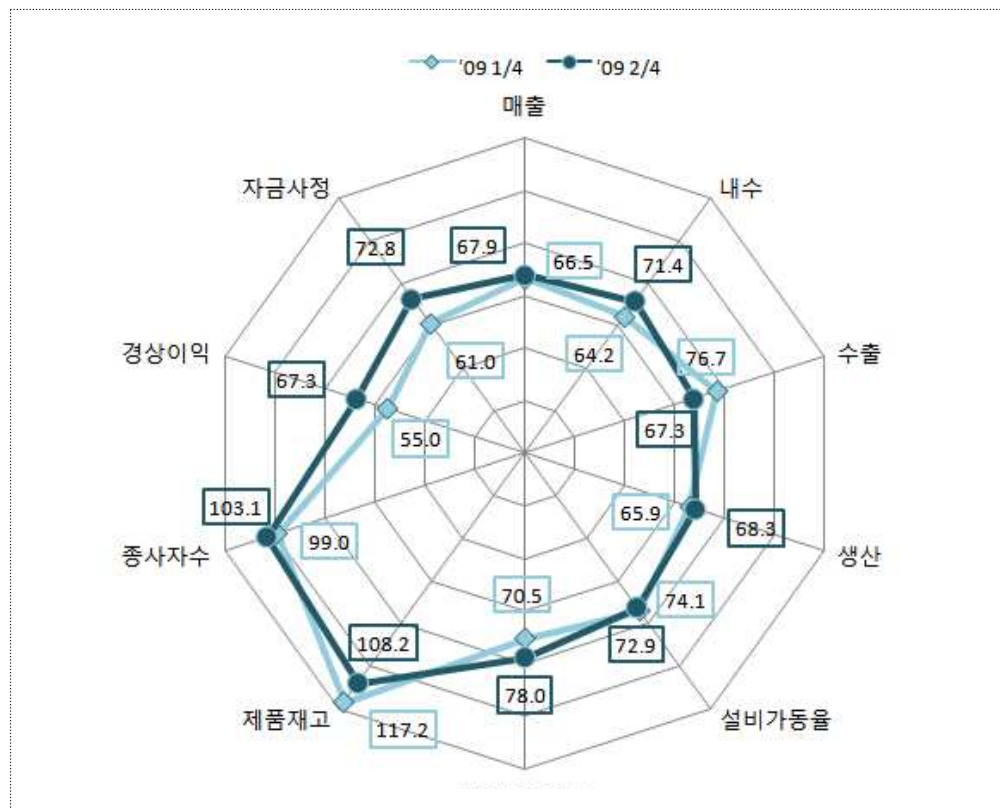
- 수출 부문 실적 지수가 66.9로 전분기 대비 10.9P 감소, 이에 따른 생산, 설비 가동율, 매출 실적 지수 또한 각각 4.5P, 4.7P, 2.2P 감소

- 내수 부문 실적 지수는 전분기 대비 3.8P 증가, 전반적인 업황실적지수 유지에 영향
- 기업의 경상이익지수는 66.9로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8.4P 증가
- 이는 기업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 절감, 현금 확보를 위한 투자 유보 등 임금 동결 및 삭감, 고용 조정 등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
- 고용 수준은 102.3으로 기타 지표가 감소한 것만큼 인력 과잉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될 경우 인력 구조 조정 예상



[그림 20] 주요 부문 실적 BSI

- 2009년 2/4분기 각 부문별 전망 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 예상
- 내수 부문(71.4), 자금 사정(72.8), 경상이익(67.3) 등 전망지수가 여전히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있어 침체국면 조정 예상
 - 그러나 수출 부문의 전망지수는 67.3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조사
 - 종사자 수 전망지수는 103.1로 적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품 재고 수준도 적정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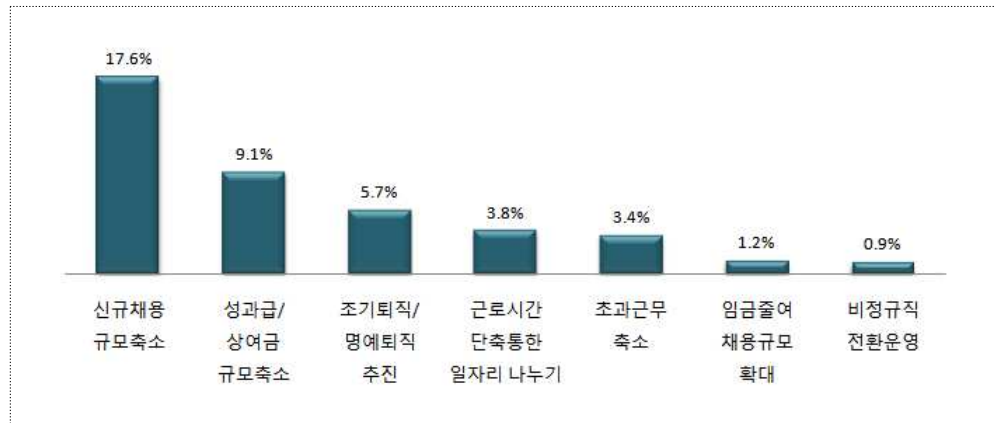


[그림 21] 주요 부문 전망 BSI

신규 채용규모 축소를 통한 고용비용 절감 추진

- 기업들은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17.6%가 신규채용 규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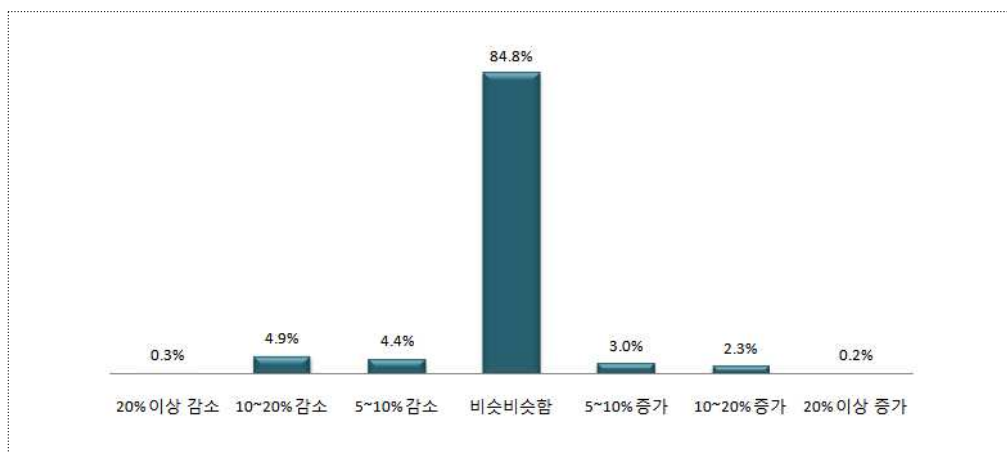
- 그 이외에 상여금/성과급 규모 축소(9.1%), 조기퇴직/명예퇴직 추진(5.7%),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3.8%) 등 전체 응답기업의 약 40% 이상이 노동비용 축소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 중



[그림 22] 경제위기 대처 위한 인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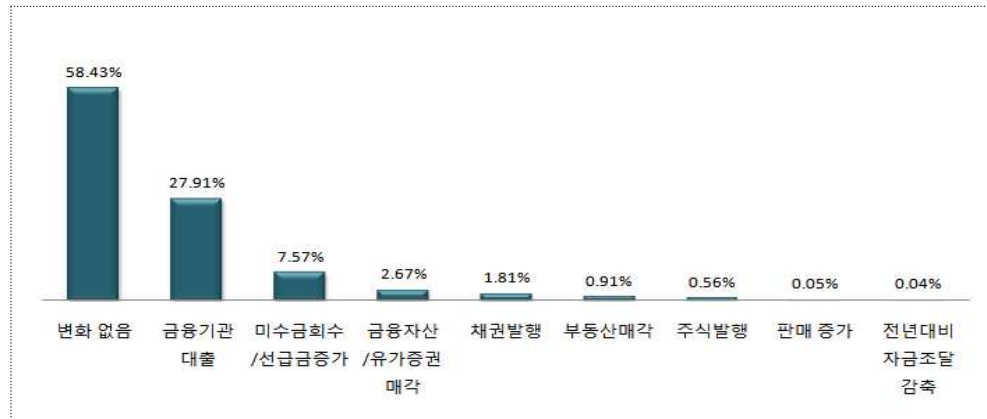
□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응답기업의 약 10% 정도만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응답, 불황기 상황에 대한 큰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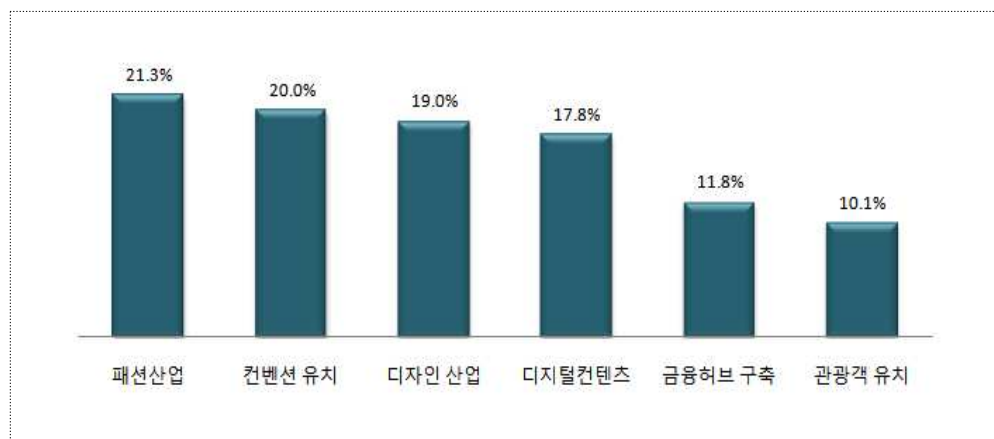
[그림 23] 전년 동기 대비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변화

- 서울지역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27.9%), 미수금 회수(7.6%) 등으로 자금 조달
 - 응답 기업의 58.4%는 작년 동분기 대비 자금조달 방법에 변화가 없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



[그림 24] 작년 동분기 대비 증가한 자금 조달 비중

- 신성장동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응답 기업은 4개 중 1개
 - 관심 분야로는 '패션 산업', '컨벤션 유치', '디자인 산업' 순



[그림 25] 관심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

Ⅳ. 종합분석 및 시사점

서울의 2009년 1/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경기침체 국면은 지속

□ 서울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하락세 유지

- 2009년 1월 서울의 생산 및 실업은 지난달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나 내수는 일시적인 반등 현상을 나타냄. 이는 설 특수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 때문으로 추정
- 서울의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로 1월 중 최저점(-26.0%)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양상이 지속될 전망

□ 2009년 1/4분기 중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서울 시민의 체감 경기 상황은 비관적

- 2009년 1/4분기 중 서울의 소비자 체감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 폭이 미미하고 기준치 100 이하로 여전히 비관적
- 금번 조사 결과 「미래경기판단지수」가 전분기보다 큰 폭(30.3P)으로 상승하여, 향후 1년간 서울의 체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책의 영향으로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6.8로 나타나 향후 주택경기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 2009년 1/4분기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업황실적지수는 60.5로 기업 경기 침체 지속

- 2009년 1/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큰 폭의 개선 없이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경영이 더욱 심각
- 기업 경영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침체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로,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많은 기업이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응답
-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은 패션, 컨벤션, 디자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2009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8년 4/4분기	63.7	60.0	77.5	35.6	66.8	78.5	81.9
2009년 1/4분기	78.3	67.6	99.2	37.8	97.1	89.9	106.8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8년 4/4분기	70.6	78.6	76.2	55.1	134.2
2009년 1/4분기	71.1	81.5	77.0	68.9	147.7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업황	매출	내수	수출	생산	설비 가동률
실적	2008년 4/4분기	59.7	68.3	63.1	77.8	73.1	74.7
	2009년 1/4분기	60.5	66.1	66.9	66.9	68.6	70.0
전망	2008년 4/4분기	55.8	66.5	64.2	76.7	65.9	74.1
	2009년 1/4분기	64.4	67.9	71.4	67.3	68.3	72.9

	구 분	설비 투자 규모	제품 재고	종사자 수	경상이익	자금사정
실적	2008년 4/4분기	75.3	118.4	97.8	58.5	63.6
	2009년 1/4분기	79.4	114.2	102.3	66.9	72.1
전망	2008년 4/4분기	70.5	117.2	99.0	55.0	61.0
	2009년 1/4분기	78.0	108.2	103.1	67.3	72.8